

대규모 유치단 파견 유럽표 공략 총력전

광주 U대회 유치 결정 D-10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결정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와 유치위원회가 벨기에 브뤼셀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고 대규모 유치단을 파견하는 등 광주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3면〉

국제대학교스포츠연맹(FISU)은 오는 3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부터 벨기에 브뤼셀의 FISU 본부에서 2013 하계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총회는 스페인 비고(Vigo)→러시아 카잔(Kazan)→광주 등 3개 유치 신청도시의 프레젠테이션에 이어 27명의 집행위원들의 심사와 투표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 도시 발표는 같은 날 밤 8시(한국시간 6월1일 새벽3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U대회 광주 유치위원회는 19일과 20일 서울 무역회관에서 이회범 유치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박광태 광주시장, 김운용 명예유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유치전략 점검회의를 갖고 3개 도시 실사 결과와 전체 집행위원의 절반(13명)에 육박하는 유럽 표심 공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22일부터 FISU 본부가 있는 브뤼셀 플라자호텔에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지 사무소에는 광주시와 한국무역협회 관계자 5명이 파견돼 유치 및 경쟁 정보수집 활동을 펴고 있다.

이에 앞서 박 시장과 유치위 관계자들은 21일 아프리카 및 유럽지역을 대상으로 마지막 유치활동을 펴기 위해 출국한다. 유치단은 오는 28일까지 남아공, 우간다, 가나, 터키, 프랑스 등을 돌며 각 국의 체육계 인사들을 만나 광주 유치 지지를 호소한다.

광주시는 또 시와 유치위, 후원회, 언론, 의회, 광주지역 구청장, 홍보대행사 관계자 및 대학생 등 120여명 규모의 유치단을 꾸려 벨기에 현지로 파견한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총회장 주변에 머물며 광주 유치의 당위성과 여건, 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개최지가 선정되는 오는 31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4시까지 광주시청 문화광장에서는 '유치 기원 철야응원전'이 펼쳐진다. 응원전에는 2천여명의 시민과 대학생, 공무원들이 손에 손에 촛불을 들고 현지 실황 중계와 공연 등을 지켜보며 대회 유치를 기원한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주와 러시아 카잔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 중"이라며 "실사 과정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뜨거운 유치 열의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면 집행위원들도 광주를 선택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지난 1~5일 실시된 현지 실사 결과 우수한 평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유치위원 561명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FTA 조기 비준 사실상 무산

"광우병 차단" 추가협상 발효

李대통령·孫대표 영수회담 입장차만 확인

이명박 대통령과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20일 청와대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조기 처리에 대한 합의가 결렬됐다.

〈관련기사 4면〉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료되는 17대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FTA가 17대 국회에서 일어난 일인만큼 17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17대 국회 회기가 4, 5일밖에 남지 않은 만큼 손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지금 쇠고기 재협상 없이는 한미 FTA에 대한 어떤 말도 깨달만한 상황이 아니다"면

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잘못된 점을 사과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이 대통령은 "핵 폐기 진전, 대북사업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대북 4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6·15 정상회담 등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긍정적인 정책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양국 통상장관의 서명이 담긴 서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서한에는 기존 합의문과 달리 척추의 횡돌기·축돌기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로 추가됐다.

정부는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물부 장관고시를 이르면 23일 시행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6일 마닐라의 '필리핀해외취업청(POEA)' 내 1층 비자 접수 창구에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노동자들이 몰려들어 큰 혼잡을 빚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어 쓰니 대접 좋아" 한국행 러시

노동자 529명 '코리아 드림' 부푼 꿈 송출업자 난립... '뒤통' 비리 골머리

외국인 노동자 실태 탐사 보도 아시아 국가 현지취재 제 4신 마닐라=최경호 기자

"영어권 국가 노동자는 한국어 잘대로 천대받지 않는다.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꿈'을 이루고야 말겠다" 지난 16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필리핀 해외취업청(POEA)'에는 한국 등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동자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이곳은 필리핀에 있어선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개인의 '꿈'을 이뤄주는 '공식 창구'로 통한다. 현재 한국(5만873명) 등 전 세계적으로 활동 중인 800만명의 노동자들이 이곳을 통해 일자리를 찾아 떠났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의 인구가 8천

870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리핀인 10명중 1명 가량은 해외에서 돈을 벌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필리핀은 미국과 호주, 중동 등으로의 '인력 수출'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 한국의 고용허가제 시행이후로 '한국행'을 꿈꾸는 노동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 1~2년새 "한국에 가면 영어 때문에 다른 아시아국가 출신들 보다

대접 받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이나 대만행을 노리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목표를 바꾸고 있다. 올해 필리핀에서 한국 입국이 확정된 노동자는 모두 529명. 이날도 POEA에 마련된 강의실에는 30여명의 한국어시험 합격자들이 '사전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들 교육생은 한국 업자들의 선택을 통해 국내 입국 자격을 얻은 노동자들로, 필리핀에 비해 급여 등 고용여건이 월등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2면으로 계속〉

북한 동포들에 '평화의 콩' 보냅니다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에게 '평화의 콩'을 보냅니다"

광주일보사는 아리랑국제평화재단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통일농장 '평화의 콩' 재배사업을 전개합니다.

광주일보사와 아리랑 국제평화재단은 러시아 연해주의 다니엘로프카에 500ha 규모의 통일농장을 조성했으며 오는 25일 첫 파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초 수확하게 되는 평화의 콩은 지난해 평양근교에 세워진 콩식품 공장에 원료로 공급됩니다.

광주·전남지역 주민과 국민여러분의 성금은 콩 종자구입과 재배 인건비, 수확 및 수송사업에 소중한 쓰이게 됩니다.

성금을 내주시 회원들은 연해주 통일농장 방문시 숙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평화의 콩 재배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계좌 : 농협 653-01-014541 (예금주 (사)아리랑국제평화재단 연해주통일농장)

■ 전화 : 광주일보 (062)220-0616, FAX(062)222-4918 아리랑국제평화재단(062)368-3690, FAX (062)368-3692

■ E-mail : arirang-peace@aipf.or.kr, karakji@hanmail.net

光州日報社·아리랑국제평화재단

정통 멤버십클럽프링

레이크힐스 순천컨트리클럽 오픈 기념

☆ 정회원 50명 선착순 마감 ☆

회원 혜택

061) 746-9999

061) 729-8866